

강상중의 도시 인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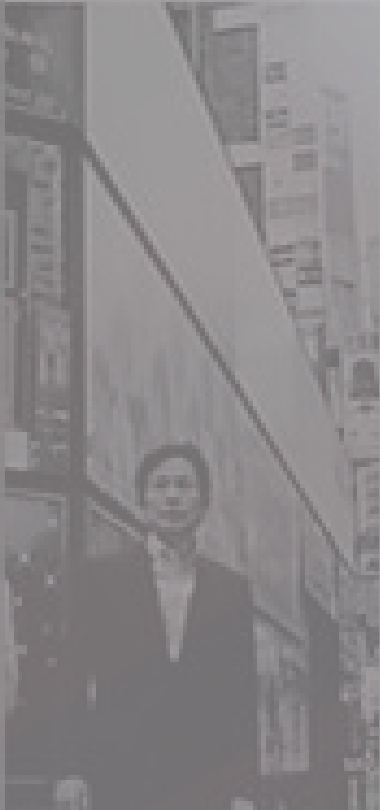
# Book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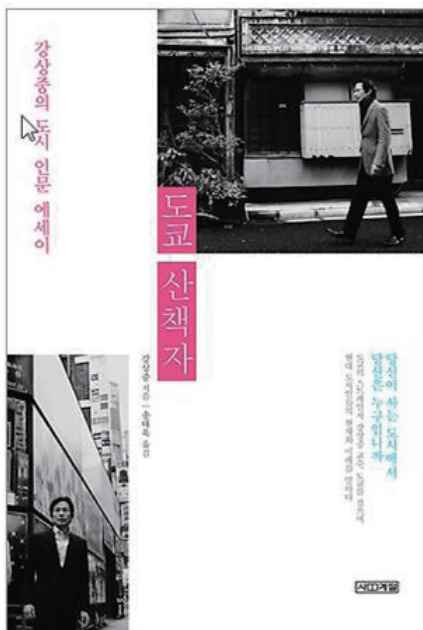
姜尙中, <도쿄 산책자>, 2013

도쿄 산책자

강상중 시공 - 출판사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당신은 누구인디까  
도쿄 산책자 강상중의 도시 인문 에세이





**〈도쿄 산책자〉**  
**姜尙中, 송태욱(옮김)**  
**사계절, 2013, 246쪽**

**\*리뷰어: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계획 수준은 도시연구 수준과 대체로 비례한다는 것이 내 평소 지론(持論)이다. 구미 선진국 도시들이 우리나라 도시들 보다 ‘확실히’ 나은 이유는 도시연구 깊이 및 넓이에 있어서의 ‘확실한’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에 대한 학문적 연구 자체가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도시연구에 있어서 공학 분야의 리더십이 압도적이다. 자치도시 전 통의 부재와 토목국가 및 토건시정의 관행이 말하자면 도시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성찰을 거의 불모지로 만든 것이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도시에 대한 철학적, 문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정치학적 사유와 분석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학문적 시민권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비록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라는 개념은 우리와 공유하더라도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의 폭과 질은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만약 한국의 도시가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도시 인문사회학의 발전에서 단서(端緒)를 찾아야 한다. 일본의 도시연구 역시 도시공학이 지배하는 점에서는 우리와 비슷하다. 그래도 일본 학계는 우리보다 사정이 조금 낫다. 일본 도시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조금 나은 것처럼 말이다.

강상중 교수의 <도쿄 산책자>는 일본 도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이해와 해석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다. 도쿄를 통해 도시를 이해하고 도쿄를 빌어 시대와 세상을 해석하려는 것도 이 책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형적인 도쿄 여행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도시 인문사회학 관련 교양서에 가까우면서 간혹 전공 서적의 냄새까지 풍긴다. <도쿄 산책자>는 강상중 교수가 잡지 <바일라>에 2년 반 동안 연재한 내용이다. 곧, 이 책은 저자가 2년 반 동안 도쿄 전역을 발로 직접 다니면서 쓴 결과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도쿄 이방인>(Tokyo Stranger)이다. 강교수는 대학시절부터 최근까지 도쿄에 살았는데, 나름대로 익숙했던 도시를 ‘이방인’의 시선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던 의도에서 나온 제목이 아닌가 싶다.

## 책을 시작하며

서장 도시에서 만나는 타자와 나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 한국 서울

### 1장 비밀상적인 공간을 찾아서

마음의 성역을 찾아서 - 메이지신궁  
마음을 헤아리다, 마음을 흔들다 - 국립신미술관  
비밀상성을 연출하는 다른 차원의 공간  
- 포시즌스 호텔 마루노우치 도쿄  
인생의 드라마투르기를 생각한다 - 기노쿠니야 홀  
혼돈 속에서 보는 삶과 죽음의 리듬 - 산자마쓰리

### 2장 모던, 포스트모던, 그 이후

도시에 우뚝 솟은 바벨탑 - 롯폰기힐스  
당신은 진지합니까? - 나쓰메 소세키의 자취를 따라서  
역사에 농락당한 벚꽃의 아름다움 - 지도리가후치  
기억이 정화되는 거리 - 하라주쿠  
근대화의 환영을 찾아서 - 오가사와라 백작 저택

### 3장 글로벌화하는 도쿄

샤넬과 긴자와 브랜드 - 샤넬 긴자점  
시장의 신은 누구에게 미소 짓는가 - 도쿄증권거래소  
크리올화하는 도시의 언어 - 신우쿠보  
지의 공동체는 어디로 가는가 - 도쿄대학  
수조 안은 안전합니까? - 시나가와 수족관

### 4장 도쿄의 문화, 도시의 문화

아날로그적 지의 세계를 거닐다 - 진보초 고서점가  
세련된 도회인이 사랑한 '웃음' - 신주쿠 스에히로테이  
전통과 혁신의 틈새에서 - 가부키자  
꿈의 성지에서 빛나는 현대의 카리스마 - 친구구장  
나의 시네마 천국 - 산젠자야 주요극장

### 5장 원자화하는 개인

어딘지 쓸쓸한 오타쿠의 성지 - 아키하바라  
야네센, 골목의 기억 - 야나가 네즈 센다기  
고양이 카페 봄에서 보는 탈옥망화 - 고양이 카페  
빈곤과 고령화를 안고 있는 거리에서 - 산야

### 6장 도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가

그 한 표로 정치는 바뀐다 - 국회의사당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가 - 최고재판소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먹거리의 현장 - 쓰키지 시장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간다 - 스미다가와  
도쿄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가  
- 가부키초에서 황거까지  
대담 고이즈미 교코 + 강상중  
- 도쿄, 교차하는 기억과 미래

## 책을 마치며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인가? 그는 재일교포 2세로서 1998년에 한국 국적자로서는 최초로 도쿄대 정보학연구소 정교수가 된 학자다. 구마모토현에서 출생한 그는 와세다대학과 독일 뉘른베르크대학에서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활발한 저술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이른바 '강 사마(様)' 열풍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초에 세이가쿠인(聖學院)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 얼마 전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 국적자가 일본 4년제 종합대 총장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학자이자 저술가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 가운데 <고민하는 힘>, <살아야 하는 이유>, <어머니>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강상중 교수가 읽는 도쿄는 지금 이 시대의 현재 진행형 도쿄다. 그런데 강교수의 시대관(時代觀)은 대체로 외롭고 힘들고 어둡다. 리먼 사태가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고도성장시대와 거품경제의 종언이, 방사능 유출과 전력난이 상징하는 자연 재해가, 공동체의 붕괴 및 사회양극화의 심화가 사람들을 하루하루 더 깊은 우울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 강교수의 평소 생각이다. 도쿄라는 도시는 말하자면 이러한 시대상(時代相)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대변하고 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줄곧 잘나가던 도쿄는 지금 “황금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강교수의 판단이다. 특히 고도경제성장 이후 도쿄는 “발정기가 끝난 도시”가 되었다. 그 결과, 도쿄는 무기질 빌딩이 즐비하고 사는 사람들도 획일화되고 심신이 바짝 말라가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럴 때 시부야구 요요기 카미노초에 있는 메이지 신궁은 강교수가 볼 때 굳이 종교적이지 않아도 일상에서 경건함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팽창기 이후 도시의 종교 시설은 신앙심과 특별히 결부되지 않아도 좋다는 판단이다. “악센트가 없이 맛있는” 현대 도시사회에서 마음의 성역 정도라면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나토구 롯폰기 국립신미술관 역시 일종의 “성지

(聖地)다. 현대사회에서 미술은 종교를 대신한다는 것이 강교수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예술은 유일무이하게 교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부터 가장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예술은 신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다. 국립신미술관이 다름 아닌 롯폰기에 들어선 것은 따라서 그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롯폰기는 도쿄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를 가장 잘 상징하는 거리인 까닭이다.

신궁이나 미술관에 이어 도심 호텔의 기능도 비슷하다.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포시즌 호텔 마루노우치 도쿄’에서 강상중 교수는 호텔이란 그 시대 문화의 담당자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스스로 유럽식 작은 호텔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그는 호텔을 “일상의 연장이면서 일상과 차별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그는 호텔을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장소”로 활용하여 공연장이나 전시관 같은 도시의 문화장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오늘날 호텔이 할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마쓰리 또한 현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다이토구 아사쿠사의 산자 마쓰리를 보며 강교수는 그것을 불안과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사회적 사정(射精)”으로 묘사한다. 울적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사회적 회로(回路)로서 작용하는 한, 마쓰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요다구 간다 진보초의 고서점가 역시 도시인들의 심성을 달래기에 적절하다. 서점 수만 200개이고 그 절반은 헌책방으로 구성된 이곳은 세계 최대의 서점가로서 옛날풍의 완고함을 간직한 “아날로그적 세계”다. 문학에는 말의 영혼, 곧, ‘언령’(言靈)이 있다고 믿는 강교수는 간다 고서점가가 문학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재발견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믿고 있다.

미나토구 롯폰기 힐스 자체에 대해서도 문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강상중 교수는 만약 긴자가 근대를 상징했다면 롯폰기는 포스트모던을

상징한다고 대비한다. 그에 의하면 롯폰기는 “척하는 것이 전혀 없기에 인간의 욕망을 직접 드러내는 거리”인데, 가짜에도 미학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는 게 강교수의 입장이다. 롯폰기의 고층건물은 기술력과 재력을 보여주는데 적합한 것으로, 이는 권력이나 돈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결과다. 다시 말해 인간의 욕망이나 상승 지향이 수직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도시의 고층빌딩이라는 것이다.

시부야구 하라주쿠는 원래 미군이 주둔했던 국제적 거리 혹은 이국적 거리였다가 현재는 패션가로 진화 중인 곳이다. 강교수는 하라주쿠를 일본 대중문화의 진원지로 보면서 그것의 키워드는 귀엽다는 뜻의 “가와이”(かわいい)라고 규정한다. 곧, 가와이 문화가 현대 일본문화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가와이 문화가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성숙 대미성숙”이라는 이분법이 소멸된 결과라고 생각하는 발상이다. “부성(父性)의 상실” 내지 “어린아이와의 밀착화”가 미성숙한 귀여움을 일본에서 문화의 반열에 올렸다는 주장이다.

주오구 긴자에 있는 샬넬 긴자점에서 그는 현대 도시인들이 세계적 유명 브랜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설명한다. 브랜드는 “세계 공통의 언어”이자 양극화 시대에 자신의 등급평가를 보증해주는 일종의 “부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기호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재미있다. 곧, 아무나 그것을 쉽게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불평등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평등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강교수의 통찰력이 매우 빛나는 대목이다.

우리 시대의 영화관도 문화적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세타가야구 신겐자야에 있는 주오극장은 시네마 콤플렉스, 곧 복합상영관이다. 그는 영화 보러 나온 김에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는 우리 시대의 세태를 은근히 비판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영화를 보면서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는 것이

다. 이는 오늘날 영화가 생활 주변에 너무나 쉽고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강교수는 “영화의 일회성 상실”이라고 표현한다. DVD 등을 통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영화와의 진지한 대면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도시인의 영화관람 태도 분석을 통해 강상중 교수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말은 “모든 것이 있어서 ‘무거운 것’을 경원시”하는 풍토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일본에서는 “나가라(ながら)족”이라 부른다.

강교수는 주오구 니혼바시가부토초 도쿄증권거래소에도 들렀다. 그에 의하면 그곳은 우리 시대 금융 자본주의의 현장으로서 “돈은 모든 것이 되고 금융 시장은 신이 된다.” 그런데 강교수는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자본주의의 추상화”를 읽는다. 곧, 모든 것을 온라인화하면서 돈이 완전히 기호화되어 있는 곳이 도쿄증권거래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권거래소는 무기질적인 공간으로서 “번쩍였던 욕망을 보기 좋게 살균”하고 있는 곳이다. 과연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의 최전선을 촌철살인(寸鐵殺人)하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시나가와구 가쓰시마 시나가와 수족관은 우리 시대 도처에 편재하는 불확실성과 전반적 위기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거대한 수족관을 바라보면서 저자는 “스스로 투명한 수조 속에 들어가 관리되기를 바라는” 현대 도시인의 역설적 심리를 간파한다. 불안한 마음에 수족관 속 물고기가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CCTV나 휴대전화의 GPS기능, 역 개찰구의 통과기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안전’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의 생활을 감시하는 것이 현대 도시의 특징이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하면 할수록 위기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는 것이 강교수의 생각이다. 수족관 사회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내성(耐性)을 약화시키며 위기에 대한 체감온도를 저하하기 때문이다.

신주쿠구 하쿠닌초 신오쿠보는 현대 도시의 또 다른 그림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민족사회다. 신오쿠보는 한국이나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밀집·거주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강교수는 “크리올(creole)화하는 도시의 언어”를 발견한다. 크리올화란 주변부 국가 출신 이민자가 현지어(=일본어)를 습득하고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의 모국어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현재 도쿄의 언어분포도에서 세계의 계층질서를 발견한다. 지금 도쿄는 이른바 ‘핫스팟’(hot spot)을 수직으로 확대 중인데, 그 결과 고층화되는 지역, 예컨대 롯폰기, 마루노우치, 시오도메, 시나가와는 ‘영어의 세계’인 반면, 주변부인 신오쿠보는 ‘크리올화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쿄는 언어적으로 분단도시가 되고 있다.

도쿄의 삶은 이 밖에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영역이 있다. 지요다구 소토칸다 아키하바라는 일본에서 이른바 “오타쿠의 성지”다. 오타쿠란 하위문화에 몰두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서툰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강교수에 의하면 오타쿠 문화는 현대 일본사회가 만든 것이다. 곧, “과도하게 풍요롭고 부유한 사회,” 따라서 단절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회가 “주어진 것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사회”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강교수는 비록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상당히 동물화한 사회”로 표현한다. 오타쿠 문화는 사회적 유대를 잃은 원자화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리얼한 인간으로 이어지는 회로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세카가야구 기타자와에 있는 고양이 카페의 체험은 이런 점에서 각별하다. 목하 일본에서는 고양이 카페가 유행이라고 한다. 그 원인으로서 강상중 교수가 들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애완동물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도시의 생활환경이다. 둘째는 위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증가인데, 말하자면 도시의 고독이 고양이 카페 성업의 배경을 이룬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절약 지향 혹은 에코 지향의 사회 분

위기를 지목한다. 다시 말해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기보다 고양이 카페에 들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이다. 강교수에 의하면 고양이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수축의 시대”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에 비해 개는 고도성장기 “팽창의 시대”에 걸 맞는 애완 동물이라고 한다.

다이토구 기요카와 부근의 산야는 도시빈곤의 최첨단 현상이다. 그곳은 일본 유수의 ‘요세바’, 곧 인력시장이 들어서 있는데 “빈곤의 그레데이션”이 산야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강상중 교수의 판단이다. 중요한 것은 서구의 슬럼가가 가족 단위라면 일본의 요세바는 기본적으로 개인 중심이라는 차이이다. 강교수에 의하면 유세바 자체는 옛날에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취업 알선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끼리의 횡적 유대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급속한 세상의 IT화에 따라 오늘날에서는 일용 노동조차 고용형태가 무작위적으로 바뀌었다. 곧, 휴대전화 하나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몰려다닌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비정규직은 이를테면 요세바 없는 일용 노동자로서 한 곳에 집결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재(點在)해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욱 더 비참해졌다.

그렇다면 도쿄에는 이제 이런 잿빛의 삶 밖에 남아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하여 다이토구에서 분쿄구에 이르는 소위 야네센 골목(=야나카, 네즈, 센다기)에서 강상중 교수에게 다소 위안을 준다. 최근 산책코스도 각광 받고 있는 이곳에는 나무 들보나 기둥을 기본구조로 하여 “열린 형태”를 지향하는 일본 전통건축의 특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곧, 야네센에는 골목길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나 생선 굽는 냄새, 사람이 살아가는 소리나 리듬, 자연의 색채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골목은 일견 쥐죽은 듯 하지만 온기가 있는 곳”이며 이른바 ‘서민정서’의 잔존이 최근 야네센 활성화의 배경이라는 것이 강교수의 해석이다.

여기에 주요구에 있는 쓰키지 시장을 추가할 수 있

겠다. 쓰키지 시장은 도쿄의 먹거리를 지탱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강교수는 도쿄증권거래소와 정반대의 이미지를 읽는다. 쓰키지 시장은 “살아있는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일 계산 불가능한 요인이 다양하게 개입”할 뿐 아니라 “믿을 것은 감이나 경험”인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것이 온라인화한 도쿄증권거래소와는 대조적으로, 이곳에는 “실체가 있고 사람도 있다.” 쓰키지 시장은 에너지가 응축된 장소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지나 패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강상중 교수가 볼 때 도쿄는 과거의 영화(榮華)를 점차 상실하는 도시다. 이방인을 자칭한 채 도쿄의 이곳저곳을 산책하면서 저자는 그 실상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고 있다. 물론 도쿄 스스로의 잘못만은 아니다. 세계화나 저성장,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적 혹은 상황적 요인들이 기본 배경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쿄가 TOKYO로 변신하는 동안 일본 내 도쿄의 위상도 많이 약해졌다. 한 때 거대한 자장(磁場)이었던 도쿄의 자력(磁力)이 최근에 다소 약화된 것은 교통망과 정보의 발달에 덧붙여 “도쿄의 편재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도쿄는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아우라도 희미해져 간다. 그렇다고 해서 도쿄 도시계획 자체의 문제가 면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강교수가 볼 때 거리가 무균 상태로 정비되고, 거리의 그림자 일소를 통해 가시성과 투명성이 증대함에 따라 도쿄는 “미지수도 없고 굴곡도 없는 도시...그러므로 어쩐지 답답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장소.” 곧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이 강교수의 주장이다. 새로 장소가 생겨도 이곳은 쇼핑하는 장소, 이곳은 스포츠 하는 장소라고 명확하게 하나의 목적이 규정되는 것이 말하자면 현대 도시계획의 문제라는 것이다. 도쿄에 절실한 것은 따라서 마련된 장소

나 기획된 이벤트에 익숙한 소비자라는 자리에서 빠져나가, 모든 주민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됨으로써 도교를 명실상부한 자유로운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불안한 시대의 도교를 지켜보며 강상중 교수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두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불안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강교수의 믿음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 “보물”인데, 그러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는 기본적으로 “타자를 만나는 장소”로서 이리저리한 배경이나 과거를 짊어진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구축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강교수에게 도시란 본질적으로 희망이다. 그러기에 이 책은 모든 도시 연구자들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격려할 수 있다. 끝으로 <도교 산책자>는 도시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으로서의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일깨워주는 역작이기도 하다. 발품을 부단히 이리저리 파는 가운데 도시의 삶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 및 통찰력을 머리와 가슴으로 배양하는 학문이 도시 인문사회학이라면 <도교 산책자>는 그것의 매우 훌륭한 귀감이 아닐 수 없다.